

한말 진천의 지식인에 나타난 의식세계

박 용 만 (충북대 강사)

1.

저 뼈죽하고 여윈 모습 나와 다름없으나
이 恨 굵이 서린 참 난 어디에서 찾을꼬!
(彼頹而癯 與吾不殊 / 此礮礪而輪困 於何見吾)

이 짧은 글은 1910년 庚戌國恥를 당하자 李建昇이 만주로 건너가기 전 개성에서 洪承憲을 기다리며 찍은 사진의 뒷면에 직접 贊을 써놓은 것이다. 왼편에 국화분을 놓고 의자에 앉아 찍은 이 사진에서 그의 모습은 마른 외모에 콧꽃한 기상이 눈에 서려있다. 자신의 표현대로 얽히고 맺힌 한이 그 눈을 통해 솟구칠 것 같은 인상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찾기(見吾) 위해 나선 길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추위와 풍토병으로 만주에서 그 맺힌 한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친다.

黃玿이 絶命詩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절실했던 것이 무엇이였을까? 필자는 처음 절명시를 접하고서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다. 단순히 황현에 대한 심정적인 동조를 넘어 그 의문에 대한 의구심은 이 사진의 자찬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이진승이 만주에서 지은 시문을 모은 『海耕堂收草』와 鄭寅杓가 진천의 은거지에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지은 시문집인 『春耕臺集』에는 당시 이들의 의식세계를 살필 수 있는 시문들로 가득하다. 여기에는 나라를 잃은 지식인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나라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슬픔과 아무런 힘도 없이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묻어난다.

진천의 洪承憲, 鄭寅杓, 鄭元夏, 李鍾滢과 강화도의 李建昌, 李建昇, 李建芳, 구례의 黃玿, 黃瑗 형제 등은 명문거족의 후예들로 자신들 역시 우월한 지위에 있었지만 이들은 국운의 쇠퇴와 國恥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떤 이는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나섰고, 또 어떤 이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며 산골에 은거하였다. 경술국치에 대하여 그들이 보이는 행동의 양태는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지식인으로서의 悲哀와 自愧感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이러한 비애와 자괴감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애썼다.

이들은 모두가 소론의 명가들로 하곡에서 비롯한 조선의 양명학, 곧 강화학의 쟁쟁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이 한말 진천을 중심으로 모임면서 진천은 소론의 반향이자, 강화도와 아울러

강화학의 유력한 거점으로 자리하였다.

여기에서는 한말 진천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경술국치를 당하여 행동을 달리했던 두 인사, 홍승헌과 정인표를 중심으로 그들의 의식세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정인표는 진천에 은둔하면서 『춘경대집』이라는 문집을 남기고 있으나, 홍승헌의 글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따라서 홍승헌의 행적은 부득이 함께 만주행을 선택했던 이견승의 『해경당수초』를 통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洪承憲(1854~1914)은 자가 文一, 호가 汶園으로, 豊山人이다. 조선후기 문장으로 유명한 耳溪 洪良浩의 5대손으로, 그의 가계 역시 대대로 별열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홍승헌 자신도 22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1894년 일본이 대궐을 침범하고 고종을 위협하는 등 國事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임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된 자가 죽는 것은 분명하다. 비록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어찌 세상에 나오겠는가?”¹⁾라며 대사헌 정원하와 함께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진천으로 내려와 은거하였다. 진천의 기지는 홍승헌의 조부인 洪翼周가 진천현감으로 있을 때 마련한 것으로, 지금의 문백면 사양리 虎巖(범바위)였다.

鄭寅杓(1855~1935)는 자가 衡伯, 호가 學山으로 東萊鄭氏 太和의 후손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秘書丞까지 올랐으며, 을사조약 이후 忠淸道巡撫使에 제수되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진천에 은거하였다.

2.

이들 중 이견승과 홍승헌은 경술국치를 당하자 더 이상 조선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여 만주로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난다.

庚戌(1910)년 나라가 망하자 고향을 떠나 중국 만주로 향하였다. 장차 떠남에 홍참판 승헌에게 편지를 부쳐 “내가 이미 乙巳(1905)년에 죽지 못하였으나 이제 또한 구차하게 살아 일본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겠소”라 하였다.²⁾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당시 선비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국운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버릴 것을 결심하였다. 황현은 자결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견승 역시 을사년에 목숨을 버릴 것을 결심하였다.³⁾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었던 국운의 회복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운명을 내맡겼다.

1) 李建昇, 『海耕堂收草』, <吏曹參判汶園洪公行狀> : 主辱臣死分耳. 雖不能死, 庸可出耶. 이 외에도 홍승헌에 대한 묘지명이 李建芳의 『蘭谷存稿』에, 그에 대한 哀辭가 鄭寅杓의 『春耕臺集』에 실려 있다.

2) 李建昇, 『海耕堂收草』, <耕齋居士自誌> : 庚戌國亡, 棄家向中國滿洲. 將行寄洪參判承憲曰 “吾既不死於乙巳, 今又苟活, 爲日本臣民, 不忍爲也.”

3) 1905년 초겨울, 李建昇과 鄭元夏는 목숨을 끊고자 하였으나 주위의 감시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원하는 끝내 칼날을 잡고 놓지 않아 한 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다. 閔泳珪, 江華學 최후의 광경, 『江華學 최후의 광경』, 又半, 1994. 40면 참조.

이건승이 고향인 강화도를 떠나 만주로 향한 것은 단 하나 설사 나라를 빼앗기었을망정 그 자신은 일본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이러한 뜻에 홍승헌의 의지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건승의 편지를 받은 진천의 홍승헌은 곧장 여장을 꾸려 그 길에 동참하였다. 다음의 시는 이건승이 1910년 9월 24일 강화도를 떠나기에 앞서 지은 시이다.⁴⁾

경술년 9월 24일 家廟에 하직하고 손에 지팡이 하나 짚고 西行을 나서는데 마치 이웃 마을을 가듯하니 사람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몰랐다. 길직리 충정공묘를 하직하고 온수리 愼周賢의 집에 머물렀다. 조카인 범하가 이불을 가지고 와서 전별하니 밤이 깊도록 뒤척이다 읊다

(庚戌九月二十四日, 辭家廟, 手持一筇, 發西行, 如往隣里, 人莫知遠行也. 辭稷下忠貞公墓, 宿溫水愼周賢家. 範夏從子, 携衾具來餞, 夜深轉輾, 口號.) 제1수

出門步步血輪困	문을 나서는 걸음마다 피는 맺히는데
父母家鄉屬別人	부모님 묘 고향 산천 남에게 맡겼다네.
大地茫茫無我土	대지가 아득히 넓어도 내 땅은 없으니
不知何處寄吾身	어느 곳에 이 몸을 기탁할지 알 수 없구나.

李建昇(1858~1924)은 자가 保卿, 호가 耕齋로, 全州李氏 德泉君派의 후예 중 조선후기 六眞 八匡으로 불리던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강화학파의 거봉인 李忠翊이 그의 고조부이며, 李是遠이 조부, 李建昌이 그의 친형이다.

가묘와 선대의 산소에 하직인사를 하고 다시는 돌아올 기약 없는 길을 나서는 이건승의 모습이 비장하면서도 애처롭다. 부모님 묘와 고향을 남[일본]에 맡기고 내[조선] 땅은 없는 현실에 무작정 길을 나서는 모습은 흡사 홍승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9월 26일 밤 이건승은 개성에 도착하여 홍문관 侍講 王性淳의 집에 여장을 풀었다. 여기에서 미리 약속한 진천의 홍승헌이 오기를 기다리며 앞에서 언급한 사진을 찍고 自贊을 썼다.

10월 1일 기다리던 홍승헌이 도착하자 이들은 지체 없이 다음날 기차를 타고 망명길을 떠난다. “성긴 눈발은 감잎처럼 날리는데, 찬 구름은 얇게 실처럼 이어졌네. / 다른 나라에 피붙이 하나 없는데, 무엇으로 노년을 위로할까”⁵⁾라는 구절은 정작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배어 있다. 두 사람은 뒤이어 도착한 이견방과 이견창의 아들인 이범하를 이별하고 열차에 올라 북으로 향한다. 신의주에 도착한 이 두 사람은 四幕村에 머물며 압록강물이 얼기를 기다린다.

1910년 12월 초하루 이들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청나라 상인의 달구지를 빌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주로 건너갔다. 이들은 남북만주는 일찍이 고구려의 땅이기에 지금 자신들은 고

4) 이하의 여정을 李建昇은 『海耕堂收草』 「西來偶存」에 별도로 정리하여 놓았다.
5) 李建昇, 『海耕堂收草』, <十月初一日, 汶園至松京, 春弟範姪亦來. 翌日登鐵道, 發行, 送別弟姪> : 分手中京路, 去留兩黯然. / 聯床留口夢, 憑軾帶殘眠. / 疎雪飄如柿, 寒雲薄似綿. / 殊邦無骨肉, 何以慰衰年.

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한다.(南北滿洲, 曾是高句麗地, 與汶園, 有吾輩今日返故鄉語.) 비록 일본의 백성이 되기 싫어 고향을 떠났지만 만주가 어찌 자신들의 옛 고향이라 여겨졌겠는가? 그러나 이들은 집요할 정도로 만주에 대한 故土意識을 포기하지 못한다.6) 그것은 우리의 땅을 일본에 빼앗기고 국토 없는 백성이 된 자신들의 처지를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만주도 우리의 땅이었으나 남의 땅이 되어 버렸고, 이제는 고국마저 일본의 땅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발붙일 곳 없는 처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화 시킨 것이라 하겠다.

安東縣 九連城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들은 내쳐 마차로 600리의 낯선 길을 달려 懷仁縣 興道村에 도착하였다. 여기에는 이미 두달 전에 도착한 진천의 鄭元夏가 마중 나와 있었다. 이들과 기약하지 않았지만 흥도촌에서 합류한 이가 흥문관 修撰을 지낸 守坡 安孝濟였다. 안효제는 1911년 겨울 60을 넘은 노인의 몸으로 경상도 宜寧에서부터 압록강을 건너 회인현에 도착하였다. 이 때 안효제의 다리는 얼어 터져 썩은 무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여정의 처참함을 알 수 있다.

회인현 흥도촌에 도착한 이들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 애초에 무엇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기에 뚜렷한 행적을 남기지도 않는다. 또한 60줄의 노인들이 낯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저 때로는 낚시하고 때로는 글을 쓰며 소일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은 낯선 땅에서 국치와 함께 조선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적응시키는 과정이었으며, 그 苦行과 悲嘆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을 괴롭힌 것은 만주의 풍토병이었다. 60줄 노인인 이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아래의 시는 홍승헌과 이견승이 심한 咳嗽(기침)과 浮脹(배가 부어오르는 병)으로 고통받는 당시의 실정을 잘 보여준다.

문원이 막 두룽에 거처할 때 咳嗽과 浮脹을 앓아 내게 약을 구하였다. 내가 부어오르는 뱃병과 기침은 모두가 氣가 오르내리질 못하여 생긴 것인데, 문원은 움직이기를 싫어하니 병이 낫질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문원이 또 시로 약을 구함에 내가 그 운에 차운하여 약을 대신한다. 이 때나 또한 기침으로 고생하니 그 때문에 이 시를 ‘藥方篇’이라 한다.

(汶園方寓杜陵, 患咳嗽浮脹, 要余藥方. 余則曰 脹與嗽皆由氣不升降, 汶園不喜動作, 病不可治. 汶園又以詩求藥方, 余用次其韻以代藥方. 時余亦苦咳, 因名其詩曰 藥方篇)

杜陵居士病閉戶	두룽거사가 병으로 문밖조차 나서지 못한다는데
康溝老翁嗽不愈	강구의 노인도 기침이 낫질 않는다네.
兩翁相望康與杜	두 노인 강구와 두룽에서 서로 바라보며
喀喀如聞破鉦鼓	캐캐거리는 소리 마치 징과 북이 찢어지는 듯하네.
<以下略>	

6) 『海耕堂收草』의 <次春世韻寄之>, <題朴白菴(殷植)東明王實記史論>, <題梁君基河所述輯安縣高句麗古蹟記> 등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를 부각시키며 만주가 우리의 故土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는 나라를 잃고 나이 60의 노인이 이역만리 타국을 떠도는 처참한 심정과 풍토병에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딱한 현실을 보여준다. 서로 마주보이는 마을에서 객객거리는 기침소리는 이들의 심정만큼이나 갈라진다.

이러한 고통스럽고 처량한 시들이 주를 이루다 『해경당수초』에는 갑자기 강화도 사곡집에 있는 매화를 떠올린다. 고향집에는 千葉白梅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月沙梅였다. 아우가 매화시를 보냄에 이견승은 悵然한 심정으로 화답하는 시를 보냈다. 이 매화는 본래 이견승이 서울의 김아무개에게서 얻은 것으로 매우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인다.7) 진천의 초평에도 이 매화가 피었다고 하니 아마도 홍승헌과 정원하가 강화도에 머물다 단발령으로 진천으로 돌아가며 가져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매화는 단지 하나의 매화가 아니다. 이역만리 먼 길을 떠난 이들에게 안온했던 과거 고향의 기억이며, 풍토병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였을 것이다.

갑인년 여름 홍승헌과 정원하가 水土 때문에 머물지 못하고 安東縣으로 이사할 것을 의논하였다. 鄭元夏는 자가 聖肇, 호가 綺堂으로, 延日人이다. 鄭文升의 손자로, 조선양명학의 비조로 추앙되는 霞谷 鄭齊斗의 6대손이다. 정원하의 가계 역시 정원하의 부친인 鄭箕錫이 진천과 문의에 별업을 일으키고 진천에 정착하였다. 정원하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견승, 홍승헌보다 두 달 앞서 진천을 떠나 만주로 갔다.

회인현의 생활은 결국 홍승헌이 먼저 떠나고, 이견승이 7월 배에 가솔들을 태우고 안동현으로 향하면서 끝났다.8)

1914년 갑인년 8월 10일 홍승헌이 풍토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안동현 元寶山 아래 寓舍에서 생을 마쳤다. 홍승헌의 시신은 원보산 아래 임시로 매장하였다. 한국의 인사들이 “그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하였지만 죽어서는 돌아갈 수 있으니, 이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여 각자 얼마씩의 돈을 내어 그 아들 洪仁植으로 하여 모시고 돌아가 진천의 虎巖에 장례지내게 하였다.9) 그 해 11월 16일 홍승헌의 운구가 고국으로 돌아감에 이견승은 병으로 직접 영결하지 못하고 시를 지어 대신 조곡하였다.

갑인년 11월 16일 汶園의 관이 장차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나 내가 병 때문에 몸소 영결하지 못하고 시로써 대신 조곡한다.

(甲寅十一月十六日, 汶園之柩, 將返故國, 余病不能躬訣, 以詩代哭) 제3수

去年携手來 떠나올 때 손을 잡고 왔더니
今日送櫬廻 오늘 운구를 돌려보내네.

7) 李建昇, 『海耕堂收草』, <余沙谷舊宅, 有千葉白梅, 所謂月沙梅是也. 嘗得之於京東村金姓人, 品甚佳, 每雪殘月白, 未嘗不黯然. 思之及見春弟贈梅詩, 重爲之悵然, 次其韻寄春弟.>.

8) 李建昇, 『海耕堂收草』, <甲寅夏, 汶園綺堂, 以水土不伏, 議徙安東縣. 汶園先行, 余以七月船載家眷發行.>

9) 李建昇, 『海耕堂收草』, <吏曹參判汶園洪公行狀> : “其生也, 不可還, 其沒也, 可還, 是吾輩責也. 各捐錢若干爲賻, 公嗣子奉柩還鎮川之虎巖.”

麥秀兼螿露	麥秀와 螿露를 부르나니
此歌千古哀	이 노래는 천고의 애절한 노래.
車迅臯呼斷	수레는 너무 빨리 지나고 언덕에 내 외침은 막혀
江上獨徘徊	강가에서 홀로 배회할 뿐.
我足限此水	내 발길은 이 물에 막혀
瞻望腸欲摧	멀리서만 바라보니 간장은 끊어질 듯.
從此空宿草	이제부터는 이 빈 무덤에
無地可酌盃	잔 올릴 길 없어라.
是處堪埋骨	이곳에 뼈를 묻어도 될 것을
何必先隴陪	어찌 꼭 선영으로 피시려 하는지.
腥塵滿一世	먼지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해도
應不到泉臺	응당 그 泉臺(무덤)에는 미치지 못하리.
感歎故人義	고인의 義에 느껴워하여
返櫬仗踈財	운구를 모시는 사람들 재물도 시듯히 여기네.

이 일행이 만주로 건너가 죽어서야 돌아오는 데까지는 모두 16년의 차이가 있다. 제일 먼저 생을 마친 이가 홍승헌이니 1914년 8월 10일 그의 나이 61세였다. 다음이 안효제 1916년 12월 17일 67세였다. 그 다음이 이건승으로 1924년 2월 18일 67세였고, 마지막으로 정원하가 72세의 나이로 1925년 7월 4일 생을 마친다.

3.

정인표의 문집인 『春耕臺集』은 1898년 비서승을 그만두고 진천으로 은거하면서부터 1935년까지의 시문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홍승헌, 정원하, 이종형 등과 함께 진천에서 생활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문집에는 1910년 3월 정인표의 손자가 태어나자 홍승헌이 축하하는 시를 지어 보내자 정인표가 이에 화답하는 시와 시기를 알 수 없는 두 수의 시를 끝으로 다음해 봄까지 글을 실지 않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정원하가 만주로 떠났고, 홍승헌 역시 9월말 이건승과 함께 만주로 가기 위해 개성으로 출발하였으니, 그 기록이 많아야 함에도 오히려 한 편도 없다는 것은 어떤 곡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시는 홍승헌이 만주로 떠난 다음해인 1911년 그 일행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두릉의 세 나그네에게 드리다
(呈杜陵三客) 제4수

窮途如此況非才	험난한 길 이와 같은데 하물며 나같이 재주 없는 몸에랴?
舉目蒼茫可自哀	눈을 드니 아득하여 절로 슬프네.
衰鬢殘年應百劫	센 머리 늘그막은 백겁인 듯 길기만 한데

摧腸一日奈千回
塵踪謾被雲留駐
寒夢偏隨月去來
賴有鄰朋持歲暮
燈前爲拭病眸開

끊어지는 간장은 하루에도 몇 천번인지.
그대들 발자취 아득히 구름 머무는 곳에 미쳤으니
차가운 꿈속에서나마 달을 따라 오가네.
그나마 의지할 친구 있어 한해를 지나니
등불 앞에 병든 눈 비벼 뜨네.

두릉은 홍승헌, 정원하, 이건승이 만주로 건너가 모여 살던 곳이다. 정인표는 이들에게 차례로 7언율시 한 수씩을 각각 부치고 끝으로 자신에게 부치는 시를 보냈다. 여기에서 함께 떠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自嘆하고 있다. 홀로 남은 날들은 백겁의 시간처럼 길기만 하고 그들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은 애간장이 녹는 듯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꿈속에서나마 달을 따라 두릉과 진천을 오가는 것뿐이다.

이 시기 일련의 시에는 정인표의 이러한 애절하면서도 자탄하는 것들이 많다.

문원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멍한 채 있다가 짓다
(聞汶園有病惘然賦此)

絕塞天寒病易侵
春山猶見雪陰陰
世情錯莫如隍鹿
身計淒涼似絃禽
縱有荒畦難任力
更無良藥可安心
願君從此須珍重
燕子來時好寄音

끝간 변방은 날이 차 병도 쉽게 들겠지
봄산에는 아직도 음산한 잔설이 보인다네.
세상 인정의 그릇됨은 隍鹿¹⁰⁾만한 것이 없으니
치량한 신세를 위한 계획 새를 묶어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비록 거친 밭이 있더라도 마음껏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니
좋은 약은 마음을 편히함만 같은 것이 없시오.
바라건대 그대는 이제부터 부디 진중하시어
제비 날아올 때는 좋은 소식 부쳐주시게.

정인표는 원래 진천에서 성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東邱 沈大允의 제자로서 경기도 안성에서 기거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안성에서 살다가 1885년(乙酉) 봄 안성에서 진천 竹峴으로 이거하였다. 다시 1898년(戊戌) 봄 인근의 九星으로 거처를 옮겼다.¹¹⁾ 안성에서 진천으로 옮긴 이유는 분명치 않다.

여기에 정인표와 비슷한 행적을 보이는 인사가 李鍾滢과 鄭閔朝이다. 이종형(1859~1929)은 자가 範一, 호가 杞園으로, 경주이씨 碧梧 李時發의 宗孫이었다.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承旨에 이르렀다. 특히 진천 초평의 경주이씨는 선대인 李夏坤이 宛委閣을 건립함으로써 진천을 학문과 문화의 터전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宛委閣이라는 학문과 문화의 기반은 지식인

10) 隍鹿 : 근거 없는 꿈의 허망함을 말한다. 『列子』 「周穆王」에 鄭나라 사람이 들에서 나무를 하다가 駭鹿을 만나자 끌고 가 때려서 죽이고는 남이 볼까 걱정하여 성 밖 도랑에 감추고 풀로 덮어놓았다. 얼마 뒤 감추어 놓은 곳을 찾아가 보니 꿈일 뿐이었다고 한다.

11) 鄭寅杓, 『春耕臺集』, <過竹峴舊礎> 註 : 往在乙酉春, 自安城移寓鎮之竹峴, 身結廬而居之. 至戊戌閏春, 又徙居于近里之九星.

들이 진천의 초평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08년 정인표의 族叔인 淵齋 鄭閔朝가 벼슬을 그만두고 초평의 금곡리로 내려와 자리를 잡는다.¹²⁾ 정은조의 아들이 爲堂 鄭寅普이니, 그 때 그의 나이 16세였다. 『춘경대집』에는 이후 정은조, 정인표, 홍승헌, 이종형 등이 어린 정인보와 함께 어울리며 그 재주에 감탄하고 더욱 면려하는 시들이 다수 실려 있다.

1914년 겨울 홍승헌의 시신이 만주 안동현에서 진천으로 돌아오자 정인표는 祭文과 哀辭를 지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5년의 세월만에 천리길 돌아왔네. 이제 가까이 있게 되니 어찌 서로 멀어지랴? 지난날 몸은 다른 땅에 있어도 마음으로 의지하였지. 이제 집에 돌아왔으나 다시 찾을 자취가 없네.¹³⁾

5년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홍승헌을 대하면서 정인표는 몸은 가까이 있어도 다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견승이 안동현에서 홍승헌을 떠나보내며 “이곳에 뼈를 묻어도 될 것을 / 어찌 꼭 선영으로 피시려 하는지.(是處堪埋骨, 何必先隴陪)”라고 하여 몸마저 헤어짐을 안타까워했지만, 정인표는 생전의 그 뜻을 다시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기를 잃은 정인표는 이 무렵의 삶을 즐거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활이라고 토로하였다.

이제 우리가 불행이 特甚함을 당하여 畏約自守하며 찢뜩거리고 초췌하였다. 거처함에는 雲壑에 깊이 은둔하여 문을 닫고, 나와서는 阡陌 간을 방황하면서도 문득 잃어버림이 있는 듯 한 해가 다 가도록 단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었으니 또한 어찌 기록할 만한 일이 하나라도 있겠는가?¹⁴⁾

홍승헌이 떠난 후 진천의 정인표는 역시 비서승을 지내다 진천으로 돌아와 함께 은거하던 李鍾滢과 장인인 李建榮(慶州人), 족속인 鄭閔朝 등과 어울리며 지냈다. 그러던 그에게 유일하게 즐거운 일로 묘사된 것은 1919년에 있었던 “春耕臺雅集”이었다. 1918년 진천에서 목천으로 거처를 옮긴 후 다음해 정은조가 두타산 아래 춘경대로 찾아오자 옛 친구들이 모여 시를 짓고 어울렸던 詩會였다.¹⁵⁾

결국 정인표도 1935년 12월 25일 진천에서 생을 마치니,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苦節窮山の 半生 / 學山 鄭寅杓씨 長逝”라 하여 그의 죽음으로 기사화하였다.

4.

12) 鄭寅杓, 『春耕臺集』, <族叔淵齋少卿(閔朝)來卜琴里喜而賦呈> 전3수.

13) 鄭寅杓, 『春耕臺集』, <祭汶園洪參判文> : 五載之闊, 千里而返. 若可邇也, 胡又相遠. 昔在殊域, 猶依以心. 今來在堂, 無跡更尋.

14) 鄭寅杓, 『春耕臺雅集帖』序 : 今吾儕遭值不幸特甚 畏約自守 侘傺焉 顛頽焉 居則深閉雲壑 惟恐人知 出則彷徨阡陌 忽若有失 終歲無一日之樂 又安有一事之可記

15) 鄭寅杓, 『春耕臺雅集帖』序 : 己未之秋, 九月下旬, 族叔淵齋副卿, 自木川, 約朴紹齡金山, 過我于頭陀山下春耕之臺.

이상에서 홍승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진천에 남아 있던 정인표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작계는 진천에 자리잡은 소론의 학자들이었지만, 한말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부족하지 않은 인물들였다. 이들이 진천에 자리한 것은 진천이 지니고 있던 특별한 조건에서 비롯하였다. 18세기 초 이하곤이 초평에 宛委閣을 건립한 후 이미 이곳은 풍부한 藏書와 미려한 景勝으로 인해 많은 묵객과 학자들이 찾아드는 명소가 되었다. 여기에 홍승헌의 조부인 洪翼周, 정원하의 부친인 鄭箕錫이 別墅를 마련하면서 강화도에 이어 강화학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한 것이다. 정인표와 정은조가 한말 이곳으로 옮겨 살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로써 진천은 한말 지식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으로 자리하였다.

한말의 급변기를 당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향리에 은거했던 이들이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은 경술국치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나라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삶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한말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국치 이전의 길이 같았지만 변괴를 겪은 이후의 길은 달랐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이 겉으로는 다를지라도 내면의 세계는 한 가지였다. 그것은 지식인으로서 시대를 아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편이 달랐을 뿐 그 정신이 다를 수는 없다.

황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홍승헌 일행은 만주로 떠났으며, 정인표 일행은 철저히 은둔하여 남은 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정신이란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판단을 말한다. 따라서 여러 양태의 행동에는 근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행동의 결과적인 선택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결정하는 인식의 참됨과 가치의 판단이 요체이지, 그에 따른 판단의 실행은 부차적인 것일 수 있다.

구체적인 행동의 양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지식인으로서 삶이었다.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비애와 자신의 삶과 학문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자괴감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었다.

끝으로 閔泳珪의 <江華學 최후의 광경>이라는 글의 일부를 인용한다.

“이건승 일행이 만주로 건너가서 하나같이 송장이 되어 돌아오는데 앞뒤 十六년이 걸린다. 나는 그 十六년의 苦行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 고행이 필요했던가, 여기서 방정맞게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무작정 우상화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한참 자기 도취하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그리고 심중팔구 구제할 수 없는 시대착오에 걸려 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요리하는 이의 정신 연령에 달려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지 모른다. 특히 요즈음에 와서 더욱 그러하다.”

